

다산포럼



김진균  
성균관대 초빙교수

한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한다. 현행법상 주당 노동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낮추면 사용자는 직장건강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 등의 여러 부담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을 일을 여러 명에게 맡겨서, 누구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게 만드는 '쪼개기 노동'이란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하루에 몇 개의 사업장을 전전해도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삶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에서 끝없는 생존의 미로를 헤매다닐 수밖에 없다.

초단시간 노동자 증언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매우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여러 대학을 오가며 강의를 해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비정규 교수의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발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는 차마 준비해간 이야기를 제대로 늘어놓지 못했다.

노년유니온에서 나온 분은 이렇게 말했다. 사무실에 웬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찾아와 박카스 한 병을 탁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말

위에 올려놓았다고 한다. 이런 데에 뭘 이런 걸 사오시느냐고 감사의 인사를 하며 그 박카스 병을 집어들었는데 허름한 노인은 화를 내며 그거 자기가 먹을 것이니 먹지 말라고 하더라. 고약한 노인이 주지도 않을 박카스를 왜 꺼내왔나 싶었는데 그 안에 담긴 것은 박카스가 아니라 농약이었다고 한다. 기초노령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수입으로 밥값과 병원비를 감당하며 어렵사리 버티고 있던 노인은, 그 일자리사업이 없어져서 이제는 밥을 굶든 병원을 못 가든 할 판이라, 어차피 죽을 거 이런 데에서 마지막 하소연이나 하고 죽으려고 가져왔다고 한다. 함께 울며 잘 달래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그 노인은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공공사업 규모를 축소 편성한 직후였다.

또 다른 발언자는 재가요양보호사 측에서 나온 분이였다. 초단시간 노동이라고 해도 사실상 365일 밤낮없이 일하게 되는 셈이라는 얘기와 휴식 없는 노동으로 건강을 잃어 자신이 돌보던 환자들처럼 치료가 필요한 처지가 되어버린 얘기. 더듬더듬 발언하던 끝에 울음을 삼키느라 준비한 내용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도 못했다.

농약을 들고 방황했을 그 노인과 울음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한 재가요양보호사분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말을 품고 살았을 것이다. 들리지 않을 말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처지는 누구도 헤아려주지 않는다.

대학 강의의 절반을 책임지면서도 인건비는 1할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 교수는 방학 기간마다 보릿고개를 겪고, 공강 시간마다 캠퍼스를 유령처럼 떠돌며, 대학

의 의사 결정 구조에서도 철저히 배제된다. 비정규 교수의 처지를 제대로 헤아려주는 사람도 없고 비정규 교수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도 없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말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누군가보다는 더 나은 편일지도 모른다.

목민심서의 '형전'에 갓난아이는 아프거나 가려워도 스스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갓난아이의 병을 '병어리(痲科)'라고 한다는 대목이 있다. 정약용은 이 비유를 통해 하소연조차 어려운 백성들의 처지를 이해하라고 수령에게 요구했던 것이다. 갓난아이의 병을 살피듯 말 할 수 있는 이들의 하소연을 듣듯 백성의 사정을 살피는 것이 수령의 임무라는 뜻이다. 백성들을 양떼처럼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한 그 시대의 가장 양심적이었던 엘리트의 윤리관이라서 모든 시민이 자기 입장을 스스로 말할 수 있다고 믿는 21세기의 사회에서는 낡은 시대의 철지난 이야기로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력과 문화를 자랑하게 된 지금도 수령에 빠진 약자들은 여전히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말을 품고 살아간다. 수령에 빠진 이들은 운이 나빴고 빠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들도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모두가 수령 속에서 좌절을 겪거나 그 옆에서 불안을 달고 살아간다. 각자도생이 유일한 전략이 되어버린 사회는 그 자체로 더 깊은 수렁을 만든다. 수령을 매수하지 않으면 끝까지 양도 도의 풍경이 영원히 지속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서로에게 말 못 하는 이들의 하소연을 듣듯 귀를 기울이고, 갓난아이의 병을 살피듯 돌봐주어야 함께 수령을 메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 끝없는 무간도를 벗어나는 문이 열린다.

청춘 특특



박지인  
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년

'헤맨 만큼 내 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목 적지를 향하는 발자취가 전부 내 세계가 된다는 말이다. 잘못 걸어왔다고 생각하는 길이든, 어쩌다 발견한 지름길이든 상관없다. '돌아켜보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과 비슷한 맥락이다.

당장 주변만 둘러봐도 휴학을 고민하는 대학생 친구들이 많다. 나도 마찬가지다. 휴학하면 그동안 자격증을 따거나 토익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곧 강박처럼 작용해 주저하게 된다. 분명 '휴(실 휴) 학(배울 학)'기간이지만 누구도 마음 놓고 '쉬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무엇이든 배우고 성취해야 하는 기간처럼 여겨진다. 갈수록 취업 시장은 어두워지고 실업 급여에 관한 뉴스가 도배되고 있는 걸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인다. 면접관들은 공백기 동안 무엇을 했냐고 묻고 청년들은 '그냥 쉬었습니다'라고 용감

헤맨 만큼 내 땅

하게 대답할 수 없다. 졸업 후 공백기도 마찬가지로 쉽게 용서받지 못한다. 여태 앞만 보고 달려온 만큼 안식년을 가져볼 수도 있었지만 한시가 급한 한국 사회에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공백기는 주어지지 않는다.

힘에도 큰 용기가 필요한 세상은 우리가 마음껏 헤매기를 허락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초·중·고를 무난히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 취업까지 막힘없길 요구한다. 그러나 각자의 삶에는 언제나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지 않은가. 사회가 맞춰 놓은 길을 따라가기 바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기에 결국 개성이 없고 싱거운 사람만이 남게 된다.

우리는 남들이 정해둔 안전한 경로를 이탈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그 길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남들이 따는 자격증이라서 남들만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억지로 끼워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 고민 없이 목적지 없이 달리고 있는 것과 같다. 어디로 가는 지 모른 채 달리는 행위에 중독이라도 된 듯 분명한 목표 없이 일단 향하는 것이다.

'갓생'이라는 신조어가 출현했던 몇 년 전, 어쩌면 지금까지도 '갓생'에 담긴 사회 분위기는 변화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만 가면..', '취업만 하면..'이라는 말로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며 모든 게 좋아질 거라

믿고 오늘을 살아간다. 그 단순하고도 거창한 목표를 이룬 다음의 계획은 없다. 우리는 천천히 쉬었다 기도 된다는 위로의 말도 잘 들리지 않을 만큼 경쟁에 익숙해져 버렸고 이것이 사회라든 지나친 사회화가 되어버린 셈이다. 우리는 대체 왜 '현실적'인 삶을 위해 나의 '현실'을 포기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는 그저 미래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시간처럼 여겨진다.

그만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다. 현재를 지나오며 거친 몇 번의 휴식과 실패가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을 부정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결과까지 도달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 성장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도전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도 없다. 그 과정에서 따라오는 두려움과 절망감이 가끔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곧 사실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도전하고 실패해 보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결국 우리가 걸어온, 앞으로 걸어갈 걸음은 모두 나의 일부만이 되기에 무조건 빠른 경로가 아닌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느꼈는지 집중해 보는 게 좋다. 나의 걸음을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한다. 길을 잃은 것만 같을 때 '헤맨 만큼 내 땅'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다시 걸어야 보자. 내 땅을 넓혀며 걸음을 딛고 있는 지금, 발걸이 이끄는 곳으로 마음껏 헤매도 보는 건 어떨까.

기고

21대 대선에도 호남은 없다

윤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지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 수도권과 충청권의 면적은 전국의 28%에 불과함에도 전국 인구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역 불균형 실태를 이야기하면서 전국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가 50% 이상 살고 있다고 하던 푸념도 이제는 28%와 64%로 확대시켜야 할 시점이다. 더 유념해야 할 사항은 지금같은 추세라면 2035년 이내 수도권과 충청권에 전국 인구의 70%가 거주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지방 인구감소 문제는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향후 한국의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는 출산율이 0.8 수준으로만 내려가도 한국인구는 2100년 1300만명 수준으로 급감하고 2750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없어 소멸할 국가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 인구감소에서 비롯한 국가적 인구감소가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음에도 호남을 비롯한 지방의 인구유출 방지 등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내놓는 후보는 단 한 명도 없고 모두 세종시와 충청권, 그리고 영남에 집중하면서 호남은 소외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호남 출신으로 명색이 지역개발 연구를 30년 이상 해온 필자의 입장에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야권의 유력후보는 영남에 대한 비중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북극항로 개척과 대륙철도 연결로, 미래산업 전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해양수산부 이전과 30분대 생활권 구축으로, '융합의 허브, 부-울-경 메가시티'를 글로벌 물류와 산업 중심의 해양수도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 위에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미래 성장동력 바이오산

업 육성,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울릉공항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호,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박정희정권에서의 서울~대전~대구~부산의 경부선 성장축이 부활하는 것 같아 걱정을 넘어 좌절감이 넘쳐나고 있다.

제발 호남은 뒷받치고 '우리 편'이어서 소외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1분의 대통령 후보들께 두 가지만 제안하고자 한다. 하나는 노무현정권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라는 행정수도 이전을 감행했던 파격적인 사례를 본받아 가장 취약한 영·호남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토 최남단 남해안 중심지역에 남해안 해양·환경·관광 수도 신시를 제안한다. 수도권(경제수도)~세종시(행정수도)~남해안(해양수도)의 균형적 국토구도를 완성하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 균형발전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에 성공한 대표적 나라인 프랑스의 DATAR(국토 및 지역개발기획단)처럼 국가 균형발전을 전담하는 범부처적 조직으로 행정안전부와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가칭) '국가균형발전부'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요컨대 열거한 국가 균형발전이야말로 전국민이 염원하는 국민통합의 핵심과제라는 사실에는 21대 대선 후보들도 이견이 없으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후보들의 최우선 공약은 지방의 인구 증가를 시작으로 국가적으로 인구가 증가해 국가가 소멸하지 않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국토 면적 7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인구는 3분의 1에 불과한 영·호남에 해양수도 같은 파격적인 구상이 실현되어 국토의 '위대한 균형(Great Balance)'이 실현되기를 기원해 본다.

社說

광주군공항 이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광주시가 '기부 대양어'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주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근 대선 공약으로 후보들에게 제안한 것과 일맥 상통해 관심을 끈다.

홍 후보는 광주일보를 비롯해 전국 9개 지역 대표 언론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가진 지난 17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 후보는 광주 군공항과 대구 군공항 이전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지방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기부 대양어 방식'은 지방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민간 갈등과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모든 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재정 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원 철회에도 쫓겨한 의료계 국민 안중에 없나

20일 서울에서 열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결기대회'를 두고 국민들의 눈총이 따랐다. 정부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 증원을 철회했는데도 의사들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익단체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의사협회측은 의사결기대회에 2만 5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는데 광주·전남에서도 의대생과 의사 8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의료계와 논의 없이 졸속으로 강행된 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사과와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하라"며 "소위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정권이 무너지고 6·3 조기 대

홍 후보의 제안은 지역 균형발전이란 큰 틀에서 나온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광주 시도도 답보 상태에 놓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해법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해 군사시설 이전을 조정하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군사시설이전위원회' 같은 전담 기구를 꾸리자는 것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무안군 사이에 갈등이 조정되지 않고 있어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도심 군공항이 초래하는 불편과 문제점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군공항을 설치할 때는 국방부 마음대로 해놓고 이전할 때는 지자체에 맡겨둔 채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따라서 재정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도리다. 홍 후보의 제안을 계기로 다른 대선 후보들도 광주 군공항 해 재정 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을 앞둔 과도 정부 상황에서 쫓겨대회의 목적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조기 대선 국면을 활용해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료계 증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막가파식 의대 증원은 문제가 있지만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료 증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사안이다. 더구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30558명)으로 되돌렸는데도 쫓겨대회를 통해 대선 후보들을 압박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위다.

의정 갈등으로 내년도 전남대와 조선대의대 정원이 올해보다 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수험생들은 2년 동안 혼란을 겪고 있다. 의료계는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행위로 반감을 살 것이 아니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차기 정부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無等鼓

멕시코의 국민 화가 프리다 칼로(Frida Kahlo·1907~1954)는 그림 만큼 저절로 인생 스토리로 유명하다. 고통에 맞서 싸우며 불멸의 작품을 남긴 그의 이야기는 영화(프리다·2002년)와 뮤지컬(프리다·2022년)로도 만들어졌다.

6세 때 소아마비를 앓았고 청소년 시기인 18세 때는 버스에 타고 있다 전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다리, 갈비뼈, 척추, 골반 등이 으스러졌고 수술 대에 오를 횟수만 서른 번이 넘었다. 그는

참대 위에 깃수를 하고 누워 있는 것이 끔찍하고 지루해서 그나마 자유로운 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천장에 거울을 매달아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고 코르셋으로 척추를 고정(부서진 기둥·1944년)한 상태에서 그림을 놓지 않았다. 남편의 외도, 유산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뒤따랐다. 평생을 고통 속에 살던 그가 사망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 일곱 개 수박 덩이를 그린 정물화다. 그림 속 수박 조각에 적힌 스페인어는 'Viva la Vida', '인생 이어 만세'다.

비바라비다

힘든 삶의 연속인대 화가가 죽기 직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대표곡 '비바 라 비다'(2008년)를 만든 것도 이같은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비바라비다'는 부패한 왕의 몰락을 노래하는 곡으로, 공연 영상 속 '오오오-오-오' 하는 대창과 동등 울리는 강렬한 드럼 소리를 듣고 있으면 몸과 발을 가만 두기 힘들다. '난 세상을 지배했었지/.../이제 백성들의 노래가 들리네/폭군이 죽었으니 새 왕께 만세/.../'라는 묵직한 노랫말까지 맞물리면서 박근혜 탄핵 심판 일(2017년 3월 10일),

윤석열 탄핵 심판일(2025년 4월 4일)에 광장을 달궜던 이른바 '탄핵 찬가'이기도 했다. 콜드플레이는 내한(2017년 4월, 2025년 4월) 시기도 탄핵 시기와 겹쳐 '탄핵 요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비상계엄을 이겨내고 다시 맞은 봄. 하지만 내란 세력은 여전히고 경제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다. 잠시 멈췄던 힘으로 다시 움직일 힘을 낼 때다. 비바라비다!

/김지을 사회부장 dok200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7-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